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Variables of the Care-giving Stress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李 信 淑

교 수 :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Dept. of Home Management

Mockpo Nationa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Lecturer : Sin-Sook, Lee

Prof. : Byong-Sook, Seo

본 연구는 노부모의 실제적 부양역할을 담당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K직할시에 거주하고 있는 며느리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은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0.67), 노모의 의존도(0.53),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0.48)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 이었다. 한편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은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0.68), 노모의 의존도(0.73),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0.39),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0.15)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 이었다.

I. 서 론

개개인의 생활이 유지·존속하는데 있어 부양의 기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노인과 같이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의 연대의식과 경로효친 사상의 윤리와 규범에 기반한 부자관계의 도덕적 틀에 의하여 노부모 부양을 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해 전통적인 부양방법, 즉 가족내 부양이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도상 체계적 미비로 인한

국가정책 확보와 불충분한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가족내 부양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노인이 67.4세, 여자노인은 75.4세(통계청, 1991)로 여자노인의 노인기가 남자노인의 노인기보다 거의 10여년이 길다. 따라서 여자노인의 96%가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하여 홀로 지내고 있어 전체 노인인구 중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여자노인들은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여러 면에서 불안정하여 그들 대부분은 성인자녀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처럼 의존하는 노모에 대한 도움과 빈번한 상호작용은 가족원 중 주로 여성이 행하여 왔는데 서구에서는 딸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하

에서는 아들과 함께 공유의 부양책임을 갖는 며느리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며느리의 가정내 역할은 이렇듯 부양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주부, 어머니, 아내의 역할 등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증가하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직업과 가사역할의 이중 부담을 가져와 며느리의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더구나 노인의 수명 연장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존, 자식으로서의 성숙의 요구, '선가정, 후사회보장'이라는 원칙하의 사회적 압력,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의 혼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런데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외현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에만 집중할 때는 행위를 형성하는 내재적이고 비가시적인 힘이 무시되며 반목과 불화 그리고 오해를 낳기 쉽다.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맺는 질적 관계의 만족은 부양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심한 스트레스에 부딪치면 무산되어 버릴 수 있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부모 중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노년의 어려움이 남자노인의 경우보다 더 심한 노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동거여부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Brody, 1985; George & Gwyther, 1986)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의 경우로 세분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노모의 의존도, 노모와 며느리간의 애정적 유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를 주요한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노모와의 더 나은 질적 관계 및 보다 효과적인 미래의 부양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부양스트레스

1. 부양스트레스의 개념

병약하고 손상된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제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Brody, 1985) 노부모 역시 많은 지지체계중 가족에 의한 지지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효윤리의 오랜 전통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노년기를 거의 자녀에게 의존하여 부양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의무감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 개념으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 중 부양에 관한 의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임춘희, 1987).

그러나 부모의 의존요구를 인지하고 참여하는 부양가족의 평형상태(homeostasis)가 변화하여 개인과 가족원간의 갈등을 자극할 때 개인과 가족관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Brody, 1985). 이와 같이 사회체계는 개인을 위한 요구와 자원을 만들며 사회적 요구 혹은 행동에 대한 규범적 기대는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요구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또는 모호할 때 혹은 과잉부담이 될 때 스트레스가 된다.

부양스트레스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측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당황과 과중한 부담의 과정인 정서적인 댓가, 일과의 혼란과 같은 부양자 일상생활의 변화, 재정적인 어려움, 역할긴장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손상(Robinson & Thurnher, 1979; Zarit et al., 1986)등을 의미한다.

노부모에게 제공되는 도움의 양은 노부모의 의존성과 연관되어 증가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된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은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은 제공되는 도움의 실제 양보다 부모의 의존을 인지함과 더 관련되어 자녀들도 그들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적거나 거의 없을 때 더욱 스트레스가 된다(Cicirelli, 1983). 이것은 노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기대하거나 예측할 때 자녀로서의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갖는 불안인 '자식으로서의 근심'과 죄의식이다 (Robinson & Thurnher, 1979; Troll, 1971).

또한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능력해진 부모를 위한 힘든 과업으로부터 신체적인 건강이 약화되며 우울, 걱정, 근심, 분노, 무력감, 불면증, 저하된 사기와 같은 정서적인 긴장을 경험한다. 또한 다양한 책임의 요구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 갈등, 소외, 자유와 시간에 대한 제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제한 등의 정신적인 소모도 가져온다 (Robinson & Thurnher, 1979). 더구나 노부모의 의존이 증가되는 시기에 부모를 돌보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40대와 50대의 중년이거나 초로(young-old)로 노부모와 함께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과 재정적인 면 등에서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부담도는 한층 더하다라고 할 수 있다(Brody, 1981; Shanass, 1980; Treas, 1977).

또한 다양한 가정 내의 전통적인 역할에 추가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도 갖게 되어 결국 노부모의 부양은 중년여성이 갖는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중간세대로서 갖는 어려움인 '이중속박(doublebinded)' (Treas, 1977)과 '협공받는 세대(sandwich generation, caught generation)' (Vincent, 1972)로 삶의 주기에서 중간위치에, 각 세대의 입장에서 중간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다양한 역할의 중간에 있는 '중간에 처한 여성(Women in the Middle)' (Brody, 1981)으로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제 2 절.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노모의 의존도

부양스트레스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도움의 실제 양보다 부모의 의존에 의하여 증가된다(Cicirelli, 1983). 노부모들은 되도록 자립하려고 하지만(Seelbach, 1977; Troll, 1971) 노화에 따른 여러 상태의 약화는 자녀에게 의존이 높아져 초기에 이루어졌던 부모-자녀간 도움의 균형이 바뀌고 부모는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게 된다.

노부모에게 나타나는 의존의 형태는 경제적 의존과 정서·사회적인 정신능력의 의존 및 신체적 의존이다. 이러한 노부모의 과도한 의존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가족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며, 한편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호혜성이 결여될 때 세대간의 애정과 접촉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노부모 부양시 기혼여성 자녀가 경험하는 긴장과 갈등은 노부모가 과도하게 의존적이며 자녀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허용하지 않을 때이며(Johnson & Catalano, 1983) 나이든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고 의존적일 때 부모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다(Johnson & Bursk, 1977).

이와 같이 노부모의 과도한 의존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살펴 보면 첫째, 여전히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고수하려는 노부모 세대와 미래 지향적인 의식을 지닌 젊은 세대간의 가치관에 의한다. 둘째, 정서적 관계가 친밀한 대상과 분리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의존성과 자율성의 양면적인 태도를 형성할 때, 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셋째, 교환이론에 의거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 등의 협상자원을 적게 소유한 노인들과 만족스런 교환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노부모 의존으로 인한 갈등과 자녀 지향적 사고에서 독립생활로의 의식의 변화는 자녀에 대한 의존이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노모와 며느리간의 애정적 유대

노모와 며느리간의 애정적 유대는 노모-며느리간의 애착과 갈등의 정도에 의하여 달라진다.

애착은 특정인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는 성향이며 안정감을 지속하는 정서적 유대이다. 여러 연구들(송현애, 1986; Bengtson et al., 1984; Cicirelli, 1983; Rossi & Rossi, 1990)은 노모의 의존에 대해 도움 제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인자녀의 애착행위이고 부모와의 거주지가 가깝고 접촉행위가 많을수록 애착행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Thompson 과 Walker(1984)에 의하면 친정어머니와 딸간의 상호도움 관계가 비슷한 호혜적 관계에서는 애정의 정도가 비슷하나 비호혜적 관계에서는 가장 낮은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노부모를 돕는 성인자녀의 도움에 있어 애착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상호교환이 되는 도움이 비호혜적일 때 자녀는 노부모를 의존적으로 여기게 되어 애착의 감정은 줄어들고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

갈등은 심리적 욕구나 가치관, 성격이나 여러가지 의견, 가족내 자원의 사용과 분배 등 관계의 제 측면에서 대립 내지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불균형·부조화이다.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가 지닌 전통적 가치관과 자녀세대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는 서로 일치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목과 갈등을 야기한다(서병숙, 1988). 또한 노부모의 경제력과 건강의 감퇴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부양자녀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점차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역할의 전이에서 오는 갈등을 표출한다.

부양자인 며느리가 부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부양 이전에 맺었던 애착과 갈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모-며느리간의 애정적 유대의 질은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Boyd(1989)는 연구를 통해 노모와 부양자인 딸간의 친밀한 애정적 관계는 이익을 낳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하였고 Lund 등(1985; Williamson & Schulz, 1990에서 재인용)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친밀했었다고 평가하는 부양자들은 친밀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부양자보다 더 적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Williamson & Schulz(1990)는 노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보고하였던 성인자녀 부양자는 노부모의 질병시 부양과정에서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지적은 노모와 며느리간에 친밀한 관계인 애정적 유대가 매개되어 부양스트레스의 증가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

인간세상의 사회적이며 구조적 산물로서 자녀의 규범적 유대는 '노부모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자녀의 책임', '자식으로서의 행동의 기대수준', '노부모의 요구에 대한 자녀의 상호작용', '자녀의 의

무감' 등의 의미를 갖는다.

노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정도는 이러한 자녀의 규범적 유대와 관련된다(Blau, 1973; Cicirelli, 1983). Blenkner(1965)는 자녀의 의무감을 '자녀로서의 성숙'의 개념으로 고정시키고 중년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숙의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호혜성에 기초하여 강화된 자발적인 의무감은 노부모에게 안정감을 주며 노부모-자녀 간의 만족스러운 관계유지를 가져온다. 따라서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충성심은 세대 간의 유대를 존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결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ngtson & Cutler, 1976).

노부모와의 애정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의무감)를 증가시키고 규범적 유대가 높을수록 노부모를 부양하고 난 후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박경란, 1988; 송현애, 1986). Horowitz(1985)도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는 부양자의 의무감이 높을수록 적은 양으로 인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tone등(1987)은 노부모 부양 의무감이 오히려 부양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직업과 가족에 대한 이중 의무는 기혼여성의 역할확대를 가져와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상반된 견해도 불구하고 자녀의 낮은 규범적 유대는 부양스트레스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미래 부양행동의 감소를 예견하기도 한다.

4.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유대는 노모에게 행하는 도움과 재정적원조 및 서어비스 등으로 부양행동을 일컫는다.

기능적 유대의 과도한 요구와 수행은 부양자에게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데 Cicirelli(1983)에 의하면 노부모의 의존과 그로인한 자녀의 많은 도움이 성인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손상으로 인한 노모의 의존은 경제적, 서어비스적으로 많은 도움을 행하는 돌보는 이에겐 긴장을 준다(George & Gwy-

ther, 1986; Johnson & Bursk, 1977; Zarit et al., 1986). Robinson과 Thurner(1979)는 노부모 환자에 대한 부양스트레스는 환자의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과 자유의 제약을 받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George 와 Gwyther(1986)도 노부모 환자의 증상이 심각할수록 부양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낮아지고 스트레스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며 부양자가 휴식으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결국 노부모에 대한 기능적 유대의 과다는 부양자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노부모를 위한 보호가 부적절해지기 쉽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노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노모의 의존도,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를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관련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또한 관련변인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관련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또한 관련변인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어떠한가?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이를 위하여 노모의 의존도, 애정적 유대(애착, 갈등), 규범적

유대, 기능적 유대, 부양스트레스 척도가 사용되었다.

노모의 의존도 척도는 Cicirelli(1983), Baruch 와 Barnett(1983), 송현애(1986)등의 척도를 기초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5$ 이었다.

노모와 며느리의 애정적유대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애착과 갈등척도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애착점수와 갈등점수의 역을 합산하여 애정적 유대의 점수로 계산하였다. 먼저 애착 척도는 Mangen등(1988)의 척도를 번안 수정한 신효식(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갈등척도는 Argyle과 Furnham(1983), 임춘희(1987)의 갈등척도를 참조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다.

며느리의 규범적유대 척도는 기혼여성 자녀의 부양 의무감을 묻는 내용으로 Mangen과 Westbrook(1988)의 가족주의 규범 척도(Norms of Familism Scale) 그리고 Finley 등(1988)의 자녀로서의 의무감 척도를 참조하여 총 7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유대 척도는 이신숙과 서병숙(1991)의 부양수행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적 부양 7문항, 경제적 부양 7문항, 서어비스적 부양 5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부양스트레스 척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이신숙·서병숙, 1993)에서 개발한 부양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 자료표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시모가 생존해 계시는 K직할시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의 실시예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K직할시의 며느리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자료를 통해 본 조사에 사용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관련분야 전공교수 4인의 평가를 거쳐 질문지를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공과목의 훈련받은 학생들이 개별면접하거나, J, M 국민학교 K,S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질문지는 모두 400부였으나 면접과 전달을 통하여 그 중 382부가 회수되었고 기재내용의 부실과 응답이 획일한 자료를 제외한 364부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Four-Way Anova, Duncan-Test,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제 1 절, 연구문제의 분석

1. 연구문제 1의 검증 : 부양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표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42.20점으로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평균점수인 34.74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와의 동거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노부모의 빈약한 건강과 경제적 요인으로 (Lang & Brody, 1983) 동거 부양자들은 이들 노부모의 돌봄으로 인하여 별거 부양자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노모와 동거하는 부양자들이 별거하는 부양자보다 더 많은 부양수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들(성미애, 1991; Brody, 1985; George & Gwyther, 1986)과 일치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부양스트레스

변 인	구분	며느리(N=364)	
		동거(N=184)	별거(N=180)
		N (%)	N (%)
노모의 의존도	상	50 (27)	46 (26)
	중	77 (42)	89 (48)
	하	57 (31)	45 (24)
애정적유대	상	50 (27)	57 (32)
	중	73 (40)	70 (39)
	하	61 (33)	53 (29)
규범적유대	상	48 (26)	58 (32)
	중	88 (48)	73 (41)
	하	48 (26)	49 (27)
기능적유대	상	57 (31)	54 (30)
	중	74 (40)	68 (38)
	하	53 (29)	58 (32)
부양스트레스	상	101 (55)	60 (33)
	중	64 (35)	66 (37)
	하	19 (10)	54 (30)
M(SD)		42.2 (12.5)	34.7 (13.1)
M(SD)		38.5(13.3)	

하 : 평균(M) - 표준편차(SD/2) < 중 < 평균(M) + 표준편차(SD/2) : 상

2. 연구문제 2의 검증 :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관련변인과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

표 2와 같이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경우에는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F(2.65)=48.71, P<.001),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F(2.65)=9.56, P<.001),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F(2.65)=8.01, P<.001), 노모의 의존도(F(2.65)=3.35, P<.05)에 따라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노모의 의존도와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F(2.65)=3.22, P<.05), 노모의 의존도와 기능적유대(F(2.65)=2.81, P<.05),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와 기능적 유대(F(2.65)=2.51, P<.05)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표 2.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관련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변량원	집단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N=184)					
		평균	Duncan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노모의 의존도 (A)	상	39.98	A	669.05	2	334.52	3.35*
	중	42.03	AB				
	하	44.98	B				
애정적유대 (B)	상	32.10	A	9729.02	2	4864.51	48.71***
	중	41.84	B				
	하	50.90	C				
규범적유대 (C)	상	39.94	A	1908.71	2	954.36	9.56***
	중	40.48	A				
	하	47.60	B				
기능적유대 (D)	상	40.35	A	1599.04	2	799.52	8.01***
	중	40.30	A				
	하	46.84	B				
A×B				1284.89	4	321.22	3.22*
A×C				515.19	4	128.80	1.29
A×D				1122.97	4	280.74	2.81*
B×C				0.00	4	0.00	0.00
B×D				0.00	4	0.00	0.00
C×D				1001.19	4	250.31	2.51*
A×B×C				0.00	7	0.00	0.00
A×B×D				0.00	8	0.00	0.00
B×C×D				214.25	8	54.22	0.54
A×C×D				578.98	7	82.71	0.83
A×B×C×D				827.65	9	91.96	0.92

하 : 평균(M) - 표준편차(SD/2) < 중 < 평균(M) + 표준편차(SD/2) : 상

*P<.05 **P<.01 ***P<.001

노모에 대한 기능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노모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0.67), 노모의 의존도(0.53),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0.48)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 이었다. 특히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는 35%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애정적 유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모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모의 의존증가가 가족관계의 긴장과 부모-자녀세대 모두에게 부정적으

표 3.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 인	집 단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N=184)		
	B	β	Partial R ² (Step)
애정적 유대	-7.48	-0.67***	0.35(1)
노모의 의존도	4.35	0.53***	0.03(2)
규범적 유대	-2.95	-0.48**	0.03(3)
회귀 상수		79.69	
R ²		0.41	
F		95.88***	

P<.01 *P<.001

로 간주된다는 Baruch 와 Barnett(1983)의 지적과 일치한다. 또한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는 부양 의

무감이 적을수록 노모를 돕고 난 후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송현애, 1986; Cicerelli, 1983)와 부양부담도와 부양의무감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경란(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연구문제 3의 검증 :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의 관련변인과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

표 4와 같이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의 경우에는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F(1.88)=32.40, P<.001$),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F(1.88)=6.20, P<.01$), 노모의 의존도($F(1.88)=5.05,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노모의 의존도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F(1.88)=2.19, P$

$<.05$)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노모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5참조)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0.68), 노모의 의존도(0.57),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0.39),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0.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였으며 그 중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는 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

표 4.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의 관련변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변량원	집단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N=180)					
		평균	Duncan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노모의 의존도 (A)	상	39.33	A	1347.00	2	673.50	5.05**
	중	33.58	B				
	하	32.33	B				
애정적유대 (B)	상	25.79	A	8639.06	2	4319.53	32.40***
	중	35.41	B				
	하	43.47	C				
규범적유대 (C)	상	31.02	A	1652.93	2	826.46	6.20**
	중	34.91	AB				
	하	38.90	B				
기능적유대 (D)	상	32.69	A	573.30	2	286.65	2.15
	중	34.32	AB				
	하	37.14	B				
A×B				327.66	4	81.91	0.61
A×C				1165.97	4	291.49	2.19*
A×D				747.64	4	186.91	1.40
B×C				0.00	4	0.00	0.00
B×D				0.00	4	0.00	0.00
C×D				452.05	4	113.01	0.85
A×B×C				0.00	7	0.00	0.00
A×B×D				0.00	8	0.00	0.00
B×C×D				207.44	7	29.63	0.21
A×C×D				802.58	7	114.65	0.86
A×B×C×D				951.92	5	190.38	1.43

하 : 평균(M) - 표준편차(SD/2) < 중 < 평균(M) + 표준편차(SD/2) : 상

*P<.05 **P<.01 ***P<.001

표 5.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결정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인	집단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N=180)		
	B	β	Partial R ² (Step)
애정적 유대	-6.21	-0.68***	0.34 (1)
노모의 의존도	1.53	0.57***	0.05 (2)
규범적 유대	-1.45	-0.39**	0.01 (3)
기능적 유대	0.29	0.15*	0.01 (4)
회귀 상수	73.54		
R ²	0.41		
F	90.01***		

*P<.05 **P<.01 P<.001

는 노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낮을수록, 노모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가 적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모와 별거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하고 부양 의무감이 낮으며 노모의 과도한 의존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Thompson & Walker, 1984)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기능적 유대가 낮을 때 오히려 부양스트레스가 증가함은 부양자의 과도한 부양수행이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George & Gwyther, 1986; Johnson & Bursk, 1977; Zarit et al., 1986)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상반될 수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전통적인 노부모에 대한 공경사상으로 노부모와 떨어져 살며 잘 부양해 드리지 못한다는 자식으로서의 불안과 죄의식이 스트레스화 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식으로서 낮은 성숙 때문에 기능적 유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중앙치인 48점보다 낮은 평균 38.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를 규범적으로 행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노부모 부양책임은 자녀가 자녀야 한다는 며느리의 책임의식과 효의식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어 바람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점수는 평균 42.20점으로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의 평균점수인 34.74점보다 높았다.

둘째,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애정적 유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 기능적 유대에서는 P<.001수준에서, 그리고 노모의 의존도에서는 P<.05 수준에서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노모의 의존도와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에서는 P<.001수준에서, 그리고 노모의 의존도와 기능적 유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와 기능적 유대에서는 P<.0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노모에 대한 기능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노모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0.67), 노모의 의존도(0.53),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0.48)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 이었다.

셋째,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애정적 유대에서는 P<.001수준에서, 그리고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 노모의 의존도에서는 P<.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노모의 의존도와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에서는 P<.05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노모의 의존도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 유대(-0.68), 노모의 의존도(0.73), 며느리의 규범적 유대(-0.

39),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 유대(0.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1%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며느리들은 노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노모와의 동거여부는 부양스트레스의 지각 정도에 많은 영향을 주어 노모와 동거하는 며느리들이 노모와 별거하는 며느리들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관련변인(노모의 의존도, 노모와 며느리 간의 애정적유대, 며느리의 규범적유대, 노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능적유대)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애정적 유대나 규범적 유대와 같은 주관적인 유대, 그리고 재정적인 원조나 일상의 접촉과 같은 객관적 유대에 의하여 부양 부담감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서에 토대를 둔 세대간의 상호관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상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이루어져 부양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도움이나 접촉의 빈도가 낮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는 노모와의 관계에서 맺는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노모부양 이전에 노모와 맺었던 애정적 유대는 부양스트레스 증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모와 며느리 간에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고 친밀감을 갖는 주관적 유대를 유지·발달시키는 양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며 세대간의 질적 관계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노모의 의존도 역시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노부모 스스로 노후에 대한 사전 준비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대한 통

제력의 발달로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긴장 상황에서의 협상기술인 자녀와의 유대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1)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서병숙(1988). 노후적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성미애(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부담도.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4)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신호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이신숙·서병숙(1991).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 7) 이신숙·서병숙(1993). 부양자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1), 39-54.
- 8) 임춘희(1987). 분거한 도시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통계청(1991). 최근 인구동태 현황 및 신인구 추계결과.
- 10) Argyle, M. & Furnham, A.(1983). Sources of satisfaction and conflict in long-term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481-492.
- 11) Baruch, G. & Barnett, R.C.(1983). Adult daughters'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02-606.
- 12) Bengtson, V.L. & Cutler, N.(1976).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 relations. In. R.H.Binstock (Eds.).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13) Bengtson, V.L., Mangen, D.J. & Landry, P.H.(1984). The multi-generation family : Concepts and findings. In V. Garms-Homolova, E.M. Hoering & D.Schaeffer(Ed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New York : C.J.Hogrefe, Ins.
- 14) Blau, Z.S.(1973).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 Franklin Watts.

- 15) Blenkner, M.(1965).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Shanas & C.F.Streib(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16) Boyd, C.J.(1989). Mother and daughters : A discussion of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91-301.
- 17) Brody, E.M.(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471-480.
- 18) Brody, E.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19) Cicirelli, V.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5.
- 20) Finley, N.J., Robert, M.D. & Banaham, B.F.(1988). Motivators and inhibitors of attitudes of filial obligation toward aging parents. *The Gerontologist* 28 (1), 73-78.
- 21) George, L.K. & Gwyther, L.P.(1986). Caregiver well-being :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253-259.
- 22) Horowitz, A.(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In C.Eisdorfer, M. P.Lawton & G.L.Maddox (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 194-246.
- 23) Johnson, E.S., & Bursk, B.J.(1977).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gerontologist* 17, 90-96.
- 24) Johnson, C.L., & Catalano, D.J.(1983).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upport to impair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612-618.
- 25) Lang, A.M. & Brody, E.M.(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3-202.
- 26) Mangen, D.J. & Westbrook, G.J.(1988). Measuring intergenerational norms. In D.J. Mangen, V.L. Bengtson & P.H. Landry (Eds.),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27) Robinson, B. & Thurnher, M.(1979). Taking care of aged parent : A family cycle transition. *The Gerontologist* 19, 586-593.
- 28) Rossi, A.S. & Rossi, P.H.(1990). Of human bonding :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29) Seelbach, W.C.(1977). Gender differences in expectations for filial responsibility. *The Gerontologist* 17(5), 421-425.
- 30) Shanas, E.(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9-18.
- 31) Stone, K.S., Cafferata, G.L., & Sangl, J.(1987). Caregivers of the frail elderly : A national profile. *The Gerontologist* 27, 616-626.
- 32) Treas, J.(1977). Family support systems for the aged : Some social and demographic considerations. *The Gerontologist* 17, 486-491.
- 33) Troll, L.(1971). The family of later lif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263-290.
- 34) Vincent, C.(1972). An open letter to the caught gener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1(1), 143-150.
- 35) Williamson, E.M., & Schulz, R.(1990). Relationship orientation, quality of prior relationship, and distress among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Psychology and Aging* 5(4), 502-509.
- 36) Zarit, S.H., Todd, P.A., & Zarit, J.M.(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 caregivers : A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26 (3), 260-266.